경북일보

농업용수 오염원 사전 차단…농어촌공사 안동지사, 수질관리 강화

오종명 기자 승인 2026.11.26 18:36 17면

지역주민·지자체·환경단체 참여 하반기 수질환경보전회 개최
축산시설 비가림막 설치·가축분뇨 관리 등 상류 유역 오염 저감 대책 공유
민관 협력과 주민 참여 확대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추진



▲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는 26일 수질환경보전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수질환경보전회'를 개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지사장 박승표)가 깨끗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 강화와 지역사회 협력에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는 26일 안동지사 6층 대회의장에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관계자 등 수질환경보전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수질환경보전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안동지사의 수질관리 추진 현황과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농업용수 수질 개선 및 지역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안동지사는 지역내 저수지의 수질관리 현황과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주요 추진 사업을 설명하고,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상류 유역 관리 활동과 오염원 저감 대책을 공유했다.

특히 상류 유역 오염원 합동점검을 비롯해 축산시설 비가림막 설치, 불법 야적된 가축분뇨 관리 등 농업용수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농업용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저수지 등 수리시설에 대한 관리뿐 아니라 상류 유역의 오염원 관리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지속 가능한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승표 지사장은 “농업용수의 수질 개선은 시설 정비뿐만 아니라 상류 오염원 관리와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긴밀히 협력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지역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는 앞으로도 수질환경보전회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저수지 수질관리와 상류 유역 오염원 저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업인의 영농환경 개선과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